

# 김 양식장 '은밀한 염산'

완도해경 바닷속 숨겨 놓은 137톤 적발



완도해경 소속 잠수대원들이 최근 진도군 의신면 해상에서 바다 속에 숨겨진 염산통을 건져내고 있다.

양식 김 잡태를 없애기 위해 사용되는 무기산 염산 사용이 줄어들고 있지만 일부 양식 어민들의 불법 사용실례는 더욱 은밀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다.

완도해경은 5일 자신의 김 양식장 바다 속에 공용용 염산을 숨겨둔 박모(여·53)씨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김에 사용되는 염산이 바다 밑에 숨겨져 있다 적발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단속을 피해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염산 사용실태의 일각이다.

더구나 바다 속에 투척된 염산통이 물리적 힘에 의해 파손될 경우 바다 오염은 물론, 인근 바다 생물이 모두 고사할 수밖에 없어 환경 재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해경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중순께 자신이 운영하는 진도군 의신면 김 양식장 인근 바다 속에 20t 짜리 염산 137톤(2천740ℓ)을 넣어둔 뒤 이를 사용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김 양식장 주변 수심 20~30m 깊이의 바다 밑

에 염산 통을 투척한 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염산 통과 부표를 연결시켜둔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박씨가 김 양식장 밭에 달라붙는 파래 등 잡태를 없애는데 사용하려고 염산을 보관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서남해안 김양식장은 10월 김 채묘를 시작으로 다음해 3월까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 郡 예산으로 문중 사당 개축

해남군 간부 공무원 7천만원 지원 특혜 의혹

해남군이 군청 간부 공무원의 문중 사당 개축비로 수천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해남군은 올해 비자금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으로 모두 8개소에 보조금 8천100만원(자부담 2천900만원)을 지원했다. 사업 대상은 관내 읍·면에서 신청한 25개의 비자금 문화재 중 계곡면 효자문화 복원과 열녀비 등 보호 가치가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 나머지 17개소는 상대적으로 보존 가치가 낮고, 시급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해남군은 지난 4월 열린 추경예산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해남군 옥천면 소재 문중 영정사당인 A영당의 개축비로 7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영당은 당시 예산 편성 일부

를 총괄했던 해남군청 Y(4급)실장의 문중 사당으로, 담당 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도 예산 편성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담당 부서에서 요청도 하지 않은 사업 예산을 예산부서에서 일의로 편성한 것이다.

A영당은 개축과정에서도 일부 입구 시설을 제외하고, 기초, 기둥, 벽, 보, 지붕을 등 건물 전체를 새롭게 짓는 등 사설상 신축을 해 자치단체가 특정 문종의 사당을 지어준 꼴이 됐다.

또 사당 개축에 들어간 일부 목재도 인근 묘지 주변에서 불법으로 벌채한 나무 수십에 그루를 400여만원을 주고 구입하는 등 지원비의 사용 내역도 문제가 되고 있다.

김종분 해남군의원도 최근 행남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서 "특정 문종의 영정 사당에 7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것은 특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해남군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올 초 비자금 문화재 정비대상을 선정 과정에서 A영당은 시급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제외했다"면서 "하지만 지난 4월 추경 예산 편성에서 A영당 개축비가 문화재 보존 관리 명목으로 새롭게 책정돼 집행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보존 가치가 높은 문중 사당의 경우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되는 사례는 있었지만, 7천만원의 예산이 집행된 것은 처음"이라면서 "내가 실무 담당자이긴 하지만, 이 사업이 선정된 과정에 대해선 잘 모른다"고 편성과정의 의문점을 시인했다.

이에 대해 당시 예산 편성 실무자는 "군 의회의 승인을 받은 민감 문제"라며 밝혔다.

/복진포기자 lucky@kwangju.co.kr

## 5·18묘지 관리소장 후보 4명 면접 보이콧

### "내정설 해명없이 면접 강행" 규탄

5·18유족회와 5·18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등 5월 관련단체는 5월 5·18 민주묘지 관리소장 사전내정설 등과 관련된 해명없이 응모자에 대한 면접이 강행된 것에 대해 규탄하고, 앞으로 관리소장 임용과 관련된 절차에 일체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5월 관련단체는 이날 광주시 서구 치평동 5·18부상자회 사무실에서 긴급 회의를 갖고 5·18묘지 관리소장 4차 공모에 응한 5·18관련단체 회원 4명이 모두 면접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면접은 오후 2시 서울 국가 보훈처에서 열렸다.

5월 단체들은 이날 "5·18 민주묘지 관리소장 자리마저 정권의 임

망에 맞는 사람을 앉히려는 행위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를 낙하산으로 임용하려는 의도"라며 "이 같은 면접에 결코 들려리로 나설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면접 일정을 재조정하는 등 관리소장 임용에 관한 절차를 다시 해 줄 것을 국가보훈처 등에 수 차례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며 "5·18 관리소장 자리마저 정권의 임망에 맞는 사람을 앉히려는 행위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실전처럼 달려라

5일 오전 광주시 서구 월드컵 보조경기장에서 1천200여명의 의용소방대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9회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 및 체육행사가 열렸다. 경연에 참가한 의용소방대원들이 '개인장비 장착 달리기' 시합을 펼치고 있다.

### 年 850% 살인 이자

### 사채업자 21명 철퇴

순천경찰은 5일 영세 기업체나 서민층을 대상으로 연 850%에 달하는 고리를 받아 쟁진 김모(25)씨 등 21명을 대부업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청소년 성매매 알선·필로폰

### '나쁜 어른' 징역 4년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재경)는 5일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필로폰을 투여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36)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매매 알선을 도운 안모(19)·박모(여·20)씨에 대해서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경찰서장 나와" 간 큰 졸속 난동

○...선택 조직원  
성대팔  
이 경찰의 불법 게임 단속에 적발된 것에 불만을 품고 경찰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린 간 큰 20대 조직 폭력배가 쇄고랑.

○...광주서부경찰은 5일 경찰지구대에서 행패를 부린 광주지역 조직폭력배 김모(24)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사채업자 김씨는 지난 달 말 700만원을 빌린 C(46)씨가 이자를 갚지 못한 채 2개월만에 원금이 1천600만원까지 오르자 빛 독촉과 함께 차에 태워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채업자 정모(25)씨는 지난 9월초 체무사에게 150만원을 대출해 주면서 선이자로 15만원을 공제하고 135만원을 지급한 뒤 매일 5만원씩 52일간 모두 260만원을 변제받는 등 연이율 850%의 높은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고 허를 끌끔. /이종행기자 golee@

# 아이엔리시마

상품권 판매 출판자 각종 모임 및 행사 100여종 500여개 종류

062) 671-1199

# 서울식 캐바리 나이트

1부 오후 5시 ~ 9시 30분  
2부 오후 9시 30분 ~ 11시 2시

VIP 티켓 판매

한소리밴드 최동호! 차기출연! 차기출연!

서울캐바리나이트  
(대인동 콧대백화점 뒤)